

재중 조선인의 조선문(한글) 잡지 발간 상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shing Situation and Developmental Plans of Korean Magazine of Joseon People(Korean) in China

이 명 규(Myoung-Gyu Lee)**

리 옥 금(Li Yu J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조선문 잡지 발행의 미래 |
| II. 중국 해방 후의 조선문 잡지 출간상황 | 1. 중국 잡지 중 핵심잡지와 재중 조선문 잡지 |
| 1. 시대별 출간 상황 | 2. 재중 조선문 잡지 발행의 어려움 |
| 2. 지역별, 주제별 출간상황 | 3. 재중 조선문 잡지 발행의 발전방안 |
| III. 조선문 잡지 개명 배경 및 상황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재중 조선인의 조선문 잡지 출간상황과 발전방안을 살핀 것이다. 재중 조선문 잡지는 중국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20여종이 출간되었다. 이들 잡지는 대체로 정치적인 영향이나 독자층을 고려해서 정간, 복간, 개명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주제로 구분해 보면 정치, 문학, 예술분야의 잡지가 주종을 이룬다. 한편 잡지발간의 어려움의 요인은 조선족 인구감소, 인くい동, 중국 정부의 지원축소와 폐지, 재료비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독자층을 확대하고 2개 언어(중국어-한국어)로 구성된 잡지를 발간하며, 중국 내외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개척하며, 한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주제어: 한글잡지, 잡지발행, 중국조선족

ABSTRACT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ublishing situation and developmental plans of Korean magazine of Joseon people(Korean) in China. About twenty types of magazines for Joseon people(Korean) in China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liberation of China. These magazines have mainly brought changes such as publication suspensions, reissuing, and renaming in reflection of reading classes and political influence. Also, when classified by topic, the mainstream includes magazines of political, cultural, and art fields. On one hand, difficulties in magazine publication come from a decrease in the Korean Chinese population, population movements, support reduction and aboli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nd increases in material costs. To overcome this, Korean reading classes should be secured and a magazine composed in two languages(Chinese-Korean) should be published to pioneer active cultural exchange in and out of China, and various forms of support should be devised from Korea.

Key Words: Korean Magazine, Korean Journal, Publication of Magazin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L2002).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gyulee@chonnam.ac.kr) (제1저자)

*** 중국 연변대학교 도서관 부교수(liyujin0625@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07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재중조선인은 19세기 중엽부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재중 조선인은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주로 중국의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 거처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1945년에 일본의 투항으로 중국 동북의 해방을 맞이하고 1949년에는 중국의 전역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에 이주하여 온 조선인들은 중국이란 드넓은 땅에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 사회무대에 진출하여 한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지켜가며 한글로 된 공개 출간의 잡지만 해도 20여종에 이르고 중문으로 출간된 학술지까지 합치면 30여종이나 된다. 이와 같은 잡지들은 재중조선족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해방 후 중국에서 출간된 조선문 잡지를 대상으로 시대별, 지역별, 분류별 등의 발간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 후 재중 조선인 출판업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

II. 중국 해방 후의 조선문 잡지 출간상황

1. 시대별 출간 상황

1949년 중국이 해방되기 직전, 동북 3성지역의 연변, 하얼빈, 목단강 등에서는 우리 글로 구성된 「문화」, 「대중」 등 10여종에 이르는 잡지들이 출간되었으나 이러한 많은 잡지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어 내려오지 못하고 정간되고 말았다.

1949년 중국이 해방된 후 중국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사업의 중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옮기면서 사회주의 국민경제를 복구하여 발전시키는 건설사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 중국이 해방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인 1948년 11월 8일 중공 중앙에서는 <새로 해방된 도시의 중외신문, 잡지, 통신사 처리방법에 관한 결정(關於新解放城市 中外新聞雜誌通信社處理方法決定)>에서 “신문과 잡지 그리고 통신사는 일정한 계급, 정당과 사회단체에서 계급투쟁을 진행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생산사업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반포하였다. 전국적인 해방을 맞이한 후 1개월 후인 11월 1일 “국가신문출판서(國家新聞出版署)”가 설립되어 모든 출판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당대기간총람(中國當代期刊總覽)」에 수록된데 따르면 1949년부터 1951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 출간된 잡지를 보면 해방 전에 발간된 잡지 66종, 1949년에 새로 발간된 잡지 28종, 1950년에 발간된 잡지 51종, 1951년에 발간된 잡지 37종을 포함하여 이 때 중국에서 발간된

잡지의 총수는 182종에 이르렀다.

중국의 56개 민족가운데서 13번째로 인구가 많고 문화수준이 제일 높은 민족으로 부상한 중국 조선족을 보면 적지 않는 유지급 인사들과 지식인들이 문인동맹, 문화협회, 문필사 등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일찍이 1947년 3월 24일에는 연변교육출판사가 설립되어 중·소학교의 교과서와 일반도서를 출판하였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중공 연변지위 기관지인 「연변일보」와 같은 신문들이 창간되고 「교육통신」, 「지부생활」, 「소학교육」 등과 같은 잡지들이 창간되어 발행되었다.

해방초기 재중 조선인 잡지들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일찍 창간되었고 근 반세기 동안이나 중국잡지와 서로 접촉, 교류, 변화,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여종에 이르는 조선문 잡지들은 발간 형편과 변화 발전해오는 시기도 서로 다르다. 그 중에 문학지 가운데서 역사가 가장 깊고 문헌의 양이 가장 많이 담겼으며 잡지명 변화가 제일 많은 「연변문예」지를 통하여 재중조선인 잡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과 아울러 다른 시기에 창간된 잡지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변문학예술연합회 준비위원회의 문학지인 「연변문예」는 1951년 6월에 창간되었는데 이때의 편집위원은 김동구, 김순기, 이흥규, 채택룡 등이었다. 이 시기에 창간된 「연변문예」는 중국 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며 시대의 당면한 정치형세에 발맞추기 위한 「연변문예」의 역할도 “이러한 정치임무와 결합해 우리는 널리 군중문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커다란 선전효과를 얻었고 군중문예운동의 초보적 기초를 닦게 되었다. 금후 문예형식을 통하여 인민을 진일보한 형태로 교육하여야 할 임무와 경제생활이 향상된 연변인민들이 문예에 대한 절박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¹⁾고 하였다. 이 시기에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연변문학예술연합회 준비위원회 기관지인 「연변문예」는 명확한 정치적 임무를 지니고 발간되었는데 1951년 6월에 창간된 「연변문예」는 총 6호를 발행되고 그 해 연말에 정간되었다.

1952년 8월 9일 중앙인민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 실시요강>을 반포하였다. 이 실시요강에 따라 재중조선인들은 연변에 조선족의 자치기관인 연변조선족자치구(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침)를 창립하였다. 이로 부터 재중 조선인들은 중국 내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아 자치지역을 가지며 자치기관에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조선족 내부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선족의 언어로 일상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1953년 중국 공산당은 과도시기 노선을 제기하였다. 노선과 함께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완성되었으며 대약진의 형세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잡지들이 출간되었다. 1949년에서 1954년 사이에 북경에서는 「인민화보」 조선문판이 발간되었고 증문으로 된 잡지 「인민문학」과 「해방군문예」 등 문학지들이 출간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문예창작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형세와 많은 문예간행물의 계속적인 창간, 그리고 조선족 작가대오의 형성 등의 객관적인 요소들은 「연변문예」의 창간을 재촉하여 1954년에

1) 연변문예, 제1호(1951)

「연변문예」는 새로운 면모로 다시 출간되었다. 이 때의 주필은 이흥규이고 부주필은 정길운이었다.

1956년 11월 19일부터 약 15일 동안에 걸쳐 중앙작가협회에서는 전국 문학기간물 편집자회의를 열었다.²⁾ 이 회의에 전국의 주요 64종 문학잡지 편집인 96명이 참석하였는데 연변에서는 임호, 채택룡, 이행복 등 3명이 참석하였다. 다른 곳에 비하면 많이 참가한 셈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중공중앙 선전부 부부장 주양, 이름있는 작가 로사, 풍설봉 등의 ‘백화만발 백가쟁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편집자 위급지가 편집경험을 소개하였다. 1956년 11월 28일,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제3차 대표대회에서 「연변문예」를 아리랑으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여³⁾ 1957년 1월부터 「아리랑」으로 출간되었다. 이 때의 주필은 임호, 부주필은 김창석이었다. 이 “아리랑은 당의 ‘백화만발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 집행하기 위하여 제재와 소재범위를 확대하면서 각종 유파, 각종 형식, 각종 풍격의 예술작품을 대담히 선택하여 실으며 간행물의 독특한 풍격과 특색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⁴⁾이라고 하였다.

1957년 6월에 중국에서는 반우파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아리랑」 잡지는 반우파투쟁에 발맞추어 작가,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문장들을 많이 실게 되었으며 적지 않은 작가들도 우파분자로 몰렸다. 「아리랑」은 1958년까지 총23기를 내고 1959년 1월호부터 「연변문학」으로 개칭하여 출간되었다. 1961년 5월부터 1966까지 「연변」으로 출간되다가 1966년부터 1974년 3월까지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정간되었다. 이 잡지는 1974년 4월에 복간되면서 다시 처음 창간한 잡지이름을 따서 「연변문예」라고 고쳤다. 당시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무리」의 득세로 「연변문예」의 근본적 임무는 혁명적 본보기극을 모범으로 노동영웅인물형상을 창조하고 부각하는 것이었다. 그 후 「사인무리」가 사라진 후인 1985년 1월에 「천지」로 개칭하여 출간하다 1998년 1월에 「연변문학」으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총제 530호를 발행하였다. 반세기 남짓 걸어진 「연변문예」는 우리 재중 조선인 문학잡지 역사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잡지로서 조선족의 역사를 가장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지이며 재중 조선인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찍어 놓은 하나의 역사 교과서이기도 하다. 이 잡지는 길림성 10대 우수간행물상, 동북 3성 우수사회간행물상을 받았으며 연속 3차례나 국가원예사상을 받았다.

해방 후 근 반세기동안 재중 조선인들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혜택 속에서 「연변문예」 외에도 많은 우리 문자로 된 잡지들을 읽을 수 있었다. 1949년에 연변주위선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부생활」이 출간되었으며 1950년 6월에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주관하는 「소년아동」이 출간되었고 1951년 「소학교육」, 1953년 「연변위생」, 1955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연변청년」이 창간되었으며 1955년에는 북경에서 「민족화보」, 「인민화보」가 조선문판으로 출간되었다. 1951년에 창간된 「소학

2) 아리랑, 제2호(1957, 2), p.50.

3) 최상철, 중국조선족언론사(경남 : 경남대출판부, 1995), p.298.

4) 아리랑, 제1호(1957, 1)

교육」은 1956년까지 도합 40호를 내고 해방전쟁시기에 하나밖에 없었던 「교육통신」(지금의 '중국 조선족교육')과 합병하였다. 1957년 4월 「장백산」이 창간되어 5기부터는 연변문학예술연합회 기관지로 되었다. 1958년에 자치주 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대중과학」이 출간되었고 1958년 「붉은기」(번역지)와 1959년 하얼빈시 조선족문화관에서 주관하는 「송화강」, 1963년 심양군구정치부에서 주관하고 연변군분구 정치부에서 주관하는 「민병의 빛」 등이 출간되었다. 그 후 문화혁명의 발단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붉은기」, 「신길립」 등 번역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선문 잡지들이 정간되었다. 「연변문예」는 1974년에 복간되었고 「민병의 빛」은 「동북민병」으로 개칭되어 출간되었다.

1976년 「사인무리」가 사라진 후 중국문단에는 많은 상처문학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우리 조선족 문단에도 새로운 기상이 일어났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 각지에는 우후죽순처럼 정간되었던 잡지들이 복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잡지들이 새로 창간되었다. 1977년에 길림지구에서 「대중문예」가 창간되었고 1979년 「연변교육」이 복간, 1980년에 지금의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백산」(처음에는 길림성통화지구에서 발간), 공청단 연변주위에서 주관하는 「청년생활」, 1981년에는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에서 「은하수」,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문학예술연구」, 1982년에 요녕인민출판사에서 주관하는 「새마을」과 연변음악협회에서 출간한 「연변음악」, 1983년에는 연변부련회 기관지인 「연변여성」과 동북3성 조선어문사업 협의소 조 기관지인 「조선어학습과연구」, 장춘시 조선족문화관에서 주관하는 「장춘문예」가 출간되었으며 1984년에는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에서 「꽃동산」 등이 출간되었다.

1976년 「사인무리」가 사라진 후부터 1985년까지, 10년 사이에 중국에서 출간한 잡지들을 보면 복간된 잡지 외에도 새로 창간한 잡지들이 1976년 51종, 1977년 68종, 1978년 190종, 1979년 449종, 1980년 530종, 1981년 495종, 1982년 331종, 1983년 300종, 1984년 383종, 1985년 608종⁵⁾으로 해마다 상승선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조선족문단에도 백화가 만발한 국면이 나타나 1976년부터 1985년 사이에 복간된 조선문 잡지 수는 7종으로 되고 새로 창간된 잡지 수는 15종으로 중국 전체의 잡지발전과 더불어 중국 조선문잡지도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1989년에는 북경에서 「민족단결」이 출간되고 1997년에는 「중학생」, 「법률과 생활」, 2000년에는 「경제생활」, 「민간이야기」 등 잡지들이 새로 출간되어 이채를 띄고 있다.

재중 조선인 잡지의 상황을 보면 해방을 계기로 하여 창간된 역사가 비교적 긴 잡지들로는 「소학교육」, 「지부생활」, 「연변문예」, 「연변위생」, 「소년아동」, 「신농촌」, 「교육통신」과 같은 것들이 있었으며 1955년부터 1979년까지는 「송화강」, 「민병의 빛」, 「대중과학」, 「대중문예」, 「장백산(1)」, 「붉은기」, 「연변청년」과 같은 잡지들이 있었으며 그 후로 보면 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장백산(2)」, 「은하수」, 「꽃동산」, 「새마을」, 「장춘문예」, 「문학예술연구」, 「조선어 학습과 연구」,

5) 中國当代期刊總攬, 上-下(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연변여성」, 「연변음악」, 「청년생활」, 「민족단결」과 같은 잡지들이 창간되었으며 90년대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생활」, 「민간이야기」, 「중학생」과 같은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이 외에도 학술지로는 중국어로 발간되고 있는 「연변대학학보」, 「한어학습」, 「동간학간」, 「연변당교학보」, 「연변교육학원학보」등 학술지와 「천지(중문)」으로 출간하는 번역지도 있다. 「연변대학학보」는 「사회과학」, 「의학」, 「농학」 등 여러 가지 판본으로 출판되고 있는데 「사회과학」판본은 간행물평의에서 핵심간행물계열에 속한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이름 있는 잡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어학습」도 중국 언어학계열의 비평에서 한어류 중문핵심간행물로 인정받아 중국 각 지방의 한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술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중국 해방 후 출간된 조선문 잡지의 창간, 개명, 연대별 상황 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문 잡지의 창간, 개명, 연대별 상황

초간상황		개명상황 1		개명상황 2		개명상황 3	
원잡지명	창간년	개명연대	새잡지명	개명연대	새잡지명	개명연대	새잡지명
교육통신	1948	1979	연변교육	1986	중국조선족교육		
소학교육	1951	1956	교육통신과 합병				
지부생활	1949						
신농촌	1949						
소년아동	1950						
연변문예	1951	1954	연변문예	1957	아리랑	1959	연변문학
		1961	연변	1974	연변문예	1985	천지
		1998	연변문학				
연변위생	1953	1982	연변의학				
연변청년	1955	1959	연변청년보와 합병				
장백산1	1956	1987	예술세계				
연변대학학보(사)	1958						
붉은기	1958	1981	붉은기 문선	1988	탐구		
대중과학	1958						
송화강	1959						
연변대학학보(자)	1962						
민병의벗	1963	1974	동북민병	1989	동북후비군		
대중문예	1977	1982	도라지				
연변의학원학보	1978						
연변농학원학보	1979						
한어학습	1980						
청년생활	1980						
장백산2	1980						
문학예술연구	1980	1984	문학과 예술				
은하수	1981						
연변음악	1982	1985	새노래				

새마을	1982	1987	갈매기				
연변녀성	1983						
조선어학습과연구	1983	1986	조선어문	1987	중국조선어문		
장춘문예	1983	1985	북두성				
동강학간	1984						
꽃동산	1984						
연변당교학보	1986						
천지(중)	1986						
연변교육학원학보	1987						
민족단결	1989	2001	중국민족				
중학생	1997						
법률과 생활	1997						
민간이야기	2000						
경제생활	2002						

2. 지역별, 주제별 출간상황

다음의 <표 2>는 각 지구에서 출간한 잡지를 중국도서관 도서분류법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 조선문 잡지의 출간지구와 주제별 현황

분류별	북경지구	연변지구	장춘지구	길림지구	요녕지구	흑룡강지구	합계
철학		1					1
사회과학총론	1	1					2
정치, 법률	1	7				2	10
군사		1					1
경제	1						1
문화·과학·교육·체육		2					2
언어·문자		2					2
문학		4	3	1	1	1	10
예술		2					2
자연과학총론		2					2
의약·위생		2					2
농업과학		1					1
종합성간행물		1					1
합계	3	26	3	1	1	3	37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문 잡지는 주제별로 볼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문학예술 부문의 잡지가 많고 자연과학 부문의 잡지는 매우 적으며 역사 부문의 잡지는 전혀 없다. 이밖에 지구별로 볼 때에도 연변 외에는 조선문출판사가 있는 곳에서 2·3종의 조선문 잡지들을 발간하고 있고 그 밖의 지구에서는 1종의 문학지만 발간하고 있으며 조선족이 많은 동북의 통화지구나 하얼빈지구 그리고 산둥지구 같은 곳들에서는 전혀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조선문 잡지 개명 배경 및 상황

잡지개명으로 오는 혼란 상태는 중국의 기타 잡지에도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다. 어떤 잡지들은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조성하는가 하면 제본형식을 고쳐 출간하여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자아낼 때도 적지 않다. 중문으로 된 어떤 잡지들은 잡지 이름을 고치려고 상급주관부문에 신청하다 거절당하였을 때에 관계 검사부문의 눈을 피해가며 잡지 겉면에다 마음대로 자기의 원래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일도 있다. 물론 상품화시대에 잡지의 이름이나 제본형태가 하나의 광고로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조선문 잡지 중에서 가장 많은 문헌량을 담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문예」는 여섯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 근 반세기동안 궤관적인 원인으로 두 차례나 정간되었고 여섯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으며 형태도 16절지로부터 32절지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자주 바뀌는 이름과 외관의 형태는 독자들과 도서관 사서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준다. 시각적으로 볼 때 이름의 바뀌고 형태의 바뀐, 또한 하나의 잡지로 인정하면서도 이름이 바뀔 때마다 알리는 창간사는 독자들에게 새로이 창간한 잡지 느낌을 주어 많은 질문을 자아낸다. 더구나 역사적인 원인이지만 「연변문예」는 1951년과 1954년에 각각 「창간사」를 발표하였으며 「연변」으로 개명하였을 때에도 또 창간사를 발표하였다. 지금에 와서 볼 때 「아리랑」은 「연변문예」의 계속적인 연결인 것 같은데도 새로이 번호를 「제1호(第1期)」라 시작하여 출간하였으며 그 후의 「연변」과 1974년 「연변문예」의 복간 후에도 또 「제1호(第1期)」로 새로이 출간하여 제각기 다른 잡지로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천지」와 「연변문학」으로 이름이 바뀔 때에도 혼란 상태를 느끼게 하였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마땅히 창간의 시작으로 되는 번호가 아니라고 여겨 이를 시정하여 1951년부터는 계속되는 번호로 고쳤다. 「연변문예」는 여러 차례 개명된 여러 가지 잡지이름이 모두 1951년 6월에 창간한 「연변문예」 이름의 계속적인 연결로 105호 누계를 260호 누계로 뛰어 넘어 출간한 원인을 1983년 1월호 「알림」에서 밝히고 있다. 그 후 본래의 16절지를 32절지로 그 형태를 바꾸어 출간하였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따로 없다. 최근에 와서 중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잡지들에서 16절지를 32절지로 바꾸고 있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원인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보건대 이렇게 자주 고치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흐려지고 신선함보다 이상함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며 반드시 이름이 바뀔 때에는 바꾸는 원인을 제때에 잡지에다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출판사 안에서 주관하는 조선문 잡지들이 있는데 인민출판사에서 주관하는 「노년세계」, 「별나라」, 「소년과학」과 교육출판사에서 주관하는 「아동세계」, 「중학생작문」, 「소학생작문」 등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조선말로 된 잡지는 비교적 많이 개칭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이름을 고친 잡지가 적지 않다. 그 원인이라면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쳐지는 것도 있고 정간되었다가 복간되면서 이름을 고친 것들도 있으며 독자대상을 고려하여 고친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연변교육」을 「중국조선족교육」으로, 「조선어문」을 「중국조선어문」으로 고치는 것은 그의 명칭이 지방성을 띠었다고 생각되기에 개칭하였고, 독자대상과 실제적 역할이 잡지 명칭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고친 것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를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려는데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으로 출판비용을 줄이고 독자들의 구독을 끌어 올리려는 목적에 잡지의 기본형태도 고치고 이름도 고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선말로 된 잡지 중에서, 길림지구에서 출간한 「장백산」 문학잡지와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청년생활」 잡지는 창간한지 25년이 흘러도 그냥 그 이름으로 외형상에서도 변함이 없이 지켜오면서 그 내용의 독특한 풍격으로 많은 구독자들을 끌고 있다. 길림지구에서 출간한 「장백산」은 길림성 10대 우수간행물, 북방지구 우수간행물, 국가 100종 문학중점간행물로 인정받았으며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청년생활」도 창간 이후 줄곧 그 이름으로 길림성 1급간행물, 길림성 10대 우수간행물 등 중국 조선문 성인잡지에서 최고발행량을 이루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같은 시대, 같은 사회, 같은 역사적 환경 속에서 지나온 중국 북경에서 출간된 「인민문학」(1949. 10), 「대중영화」(1950. 6) 등의 잡지들은 창간된 지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이름과 그 형태로 이어져 내려왔고, 더더욱 해방 전부터 지금까지 이름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발간되고 있는 「中華醫學雜誌」(1915년), 「地質學報」(1922년), 「中國青年」(1923년) 등의 많은 잡지들은 지금도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많은 양으로 출간되는 상황에 비추어 재중조선인들도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영원히 지금 그 이름으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명품잡지들을 출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IV. 조선문 잡지 발행의 미래

재중 조선인 잡지는 시장경쟁 속에서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을 깎는 진통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중국 잡지 중 핵심잡지와 재중 조선문 잡지

최근 관계부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까지 중국에는 8천여종의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그 중 사회과학 잡지는 4000여종이고 학술이론 잡지는 3000여종이 된다.⁶⁾ 1990년 11월 원국가교육위

6) 江西社會科學, 增刊(南昌, 2002), pp.255-258.

원회 인문사회과학 '95'계획 대상 중의 항목인 '核心期刊文獻計量學研究'사업이 북경에서 있었다. 이 과제는 북경지구 고등학교 도서관 간행물사업 연구회와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41개 대학교의 200여명의 도서관 전문가들과 400여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면 검증하고 131개 학과에서 2174종의 핵심간행물을 선정하여 1992년 9월에 「中文核心期刊要目總覽」 제1판을 북경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⁷⁾ 그 후 매 4년에 한번씩 1996년 8월과 2000년 6월, 2004년 3월에 걸쳐 제2판과 제3판, 제4판을 연속 출판하였는데 제2판에는 1596종이 선정되었고 제3판에는 1571종이 선정되었다. 「中文核心期刊要目總覽」의 연속적인 출판은 중국학술간행물의 질과 표준을 검증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방법이었다. 일단 「中文核心期刊要目總覽」에 등록된 잡지는 그 명망이 높아 모두가 알아주는 것으로써 여기에 실린 문장들은 직함평의나 학술평의 등에서 인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되고 있다. 평의의 표준들을 보면 첫째로는 주로 전재(옮겨 실린)한 문장의 양을 보는데 주로 중국인민대학의 「잡지복사자료」에 얼마나 전제되었는가를 보며, 둘째로는 참고로 인용된 양을 보는데 자기 잡지의 문장들이 다른 문장들 속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가를 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펴낸 문장의 양을 보는데 1년 내에 얼마나 되는 문장들을 펴냈는가를 하는 것이며, 넷째로는 「全國報刊索引」, 「文摘」 등에 수록된 문장의 양과 파급요소들을 보는데 어떠한 파급요소들이 있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과학적인 결과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평의를 걸쳐 길림성 연변대학의 「연변대학학보」가 핵심간행물로 선정되었다. 「연변대학학보」는 중문으로 출판되는 학술지이지만 어디로 보나 우리 민족의 특색을 살리는 자랑할 만한 학술지이다. 13억 중국인의 망망한 바다 속의 물 한 방울이나 다름없는 조선족이 발간하는 대학교의 학술지가 8000여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핵심간행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대학의 자랑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조선문으로 된 학술지와 잡지들은 어떠한가? 「중국조선어문」을 비롯한 「중국조선족교육」과 「문학과 예술」 등의 잡지들은 모두 이름 있는 학술지이지만 언어문제로 이런 평의에 설수가 없는 실정이다. 위의 핵심간행물계열에 든 잡지들은 자연히 투고열이 높고 독자대상이 많게 되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지만 우리 조선문으로 된 잡지들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몇 개의 잡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잡지들은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낱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실정, 인구가동으로 인한 독자대상 소실, 자기 민족어를 떠나 중국어학교에 다니는 학생수의 증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조선족중소학교 등의 원인으로 하여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2. 재중 조선문 잡지 발행의 어려움

계획경제시대 중국 조선문 잡지들은 주로 정치적 수요에 따라 발간되었기에 나라나 정부에서

7) 中國圖書館學報. 제3호(2002), pp.72-74.

인원편제, 출판비용 등 많은 면에서 도맡아 주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시장경제 도입 후 중국사회의 변화로 하여 우리의 잡지들도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조선문 잡지도 점차 자주경영, 자주관리의 길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오르는 종이값, 인쇄비 등의 원인으로 잡지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들에서는 잡지들을 구입할 때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전처럼 상당한 복본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실정이다. 물론 도서 구입비를 올렸으나 오르는 책값에 비하면 적잖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80년대에 연변대학도서관에서는 조선문으로 된 잡지는 전부 저장하되 최저로 3부 이상 5부를 구입하던 것이 근년에는 겨우 한부만 구입하고 그것도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도서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며 부문이나 부서의 자료실은 더욱 예외가 아니다. 중소학교 도서관에서도 해마다 잡지를 구매하는 비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구이동으로 나타나는 독자층의 소실, 조선족인구의 감소와 조선족학생이 한족학교로 가는 실정은 조선말로 된 잡지의 독자대오가 날마다 소실됨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인구는 1996년부터 연속적인 감소를 이루어 해마다 소학교 입학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아동잡지의 독자대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조선족 학생들이 한족학교로 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의 통계에 따르면 한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 학생수는 소학교에 13.7%이고 중학교에 12.7%였는데 2002년에 와서는 한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 학생이 소학교에 22%, 중학교에 17%로 늘어났다. 이는 현재에는 아동잡지와 보급잡지의 독자수가 줄어들지만 멀지 않은 앞날에는 우리의 문예지를 비롯한 학술지와 전반 잡지들의 독자대상이 이와 같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인구이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 집거구역을 떠나 중국의 기타 큰 성시에 생활하는 조선족독자층은 자연히 우리의 잡지와 멀어지기 마련이다.

중국의 200만을 헤아리는 조선족들이 자기의 글을 사랑하고 자기글로 된 잡지들을 읽을 줄 알게 하려면 교육부에서 주의를 돌려 어릴 때부터 한족학교에 다니는 조선족학생이 없게 해야 한다. 지금 연길시에서는 조선족학부모들이 자식을 한족학교에 입학시키는 열풍이 불어 이런 기풍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교육의 장래를 위한 조치이며 민족인재를 양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글을 읽을 줄 이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우리글로 된 잡지를 애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잡지독자층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인 것이다. 우리말을 모르는 학생이 많아지면 민족학교가 없어지고 민족학교가 없어지면 민족사회가 없어지며 따라서 민족의 언어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 민족언어 사회의 터전을 마련하는 조선족학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방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문잡지의 변화발전을 보면 더딘 편이다. 1951년에 중국에는 「연변문예」를 포함하여 조선문잡지가 6종이 있었다. 이 때 중국의 각종 잡지는 모두 182종(中國當代期刊總攬)이었는데, 2002년에 와서 중국의 잡지수는 8000여종이나 되었으나 우리의 잡지 수는 겨우 30여종에 지나지 않았다. 중문 잡지에 비하여 종류수가 너무 적고 그 분포도 제한되어 있다.

조선문으로 된 잡지사 자체의 실정에서 볼 때에도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다. 시장경제를 도입함에 따라 잡지사도 기업화하면서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경비를 감소하는데서 조선문 잡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독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잡지발행량이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는데 출판경비마저 점차적으로 줄여 50%에 이르며 앞으로는 전혀 주지 않고 스스로 발간하는 잡지사도 나타날 예정이다. 독자대상에 따른 발행량이 적은 형편을 고려하여 출판국과 같은 관계부문들에서는 나라나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중 조선인 잡지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안고 있는 잡지들로는 「중국민족」, 「중국조선어문」, 「동북후비군」 등과 같은 잡지들인데 발행량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주는 비용으로 살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둘째, 부분적 비용은 정부에서 안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하는 잡지들을 보면 「연변여성」, 「문학과 예술」, 「대중과학」, 「연변문학」 등의 잡지들인데 이 잡지들을 보면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형편이다. 「문학과 예술」과 같은 잡지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평론지이기에 구독자가 일반 문학지보다 적어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대중과학」과 같은 잡지사들은 어느 과학, 기술 전문지와는 달리 많은 부문의 전문 과학지식이 풍부한 편집자들이 있어야 하기에 잡지사가 안고 있는 인력부담 또한 적지 않은데서 특수한 지원이 없이 일단 시장경제에 내몰리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발간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

셋째, 자체적인 비용으로 살아가는 잡지인 「청년생활」처럼 출판사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인원이나 모든 경비를 도맡아 주관하고 있는 잡지들인데 지금 형편을 볼 때에는 구독자도 많고 광고 형편도 괜찮아 자체의 비용으로 잡지를 간행해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의 형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항상 근심을 갖고 애쓰고 있는 모습도 이 부류의 잡지사들이다.

넷째, 일정한 협회나 문화, 학술단체들에서 간행하는 잡지들인데 이러한 잡지들은 소속되어 있는 학술단체에서 일정한 비용을 보조형식으로 지출하여 주기에 마련되는 비용에 따라 그만큼씩 잡지를 찍고 있는 형편이다.

다섯째, 이밖에 따로 잡지사를 차리지 않고 출판사들에서 간행물번호를 갖고 출판하고 있는 잡지들이 있는데 이 부류의 잡지들을 보면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은하수」, 「꽃동산」, 연변인민출판사에서 간행하는 「법률과 생활」, 「노년생활」, 「별나라」, 「소년과학」, 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중학생작문」, 「소학생작문」, 「아동세계」 등과 같은 잡지들이 있다. 이와 같이 출판사에서 간행물번호로 발간하는 잡지들을 보면 내용과 형식면에서 취미성과 협기성이 많고 또 많은 면에서 다른 곳의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 번역하거나 민족 실정에 맞게 조금 고쳐 실게 되는데서 편집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독적인 잡지사도 아닌데서 잘 되면 계속 간행하고, 안되면 출판사내의 다른 편집부로 옮겨 앉으면 그만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선문 잡지는 독자대상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일부 판매량이 높은 잡지를 제외

하고 정부측에서나 사회의 관계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발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오늘날 소수민족을 돌보는 견지에서 정부에서 조선족 잡지들에 대해 많이 돌봐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변에서 출판되고 있는 조선문 잡지 가운데서 보면 「연변문학」(월간)은 11명 재직인원과 퇴직인원 9명으로 매월 500부, 1년에 6,000부 발행하는데 보조하여 주는 비용이 1년에 43만원이 넘으며 수입은 10만원 정도인데 1년 지출을 빼면 8만원 정도 적자가 생기고, 편집인원이 제일 많은 「대중과학」(월간)은 재직편집인원 13명, 퇴직 6명으로 매월 3,300부, 1년에 39,000부 찍는데 정부에서 하달되는 27만원에 발행, 광고수입을 합하여도 16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의 조선말잡지들을 중국말잡지들과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금 8천여 종의 중문잡지 중에 100만부를 넘어 발행하는 잡지는 25종이나 되며 그 가운데서 「讀者」라는 잡지는 월간인데 매월 발행량이 310만부를 넘어서고 있다. 민족인구 비례를 보아 비길 바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문 잡지는 발행량이 적고 그 종류도 얼마 안 되며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딘 것만은 사실이다.

3. 재중 조선문 잡지 발행의 발전방안

물론 정부부문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민족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우리 글로 된 잡지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을 키워주며 민족적 특색을 살린 명품 잡지를 간행하여 전 중국과 세계로 진출하여야 한다.

한·중 수교 전에는 중국에 한국어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중 수교 후에는 중국에 한국어과(중국학생을 대상)가 북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낙양외국어대학, 연변대학, 북경제2외국어대학에만 설치되었던 것이 지금은 복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길림대학, 흑룡강대학, 요녕대학, 산둥대학, 청도대학, 대련외국어대학, 연대대학, 천진사범대학, 양주대학, 광둥외국어대외무역대학, 중앙민족대학, 남경사범대학 등 40여개 대학교에 설치되어 한국어과가 많이 늘어났다. 2003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의 대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우는 한족학생이 3,127명이 된다. 이는 국가의 통일고시에 합격되어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수이고 이밖에 여러 가지 자습대학과 통신대학 등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 내에는 한국 외자기업의 투자로 하여 여러 지방에서도 학원을 조성하여 한족들한테 한국어를 배워주는 열기가 일고 있다. 이 부류의 학생들은 「중국조선어문」을 찾는 학생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잡지의 기본 독자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과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민족은 물론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도 우리글을 많이 배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알게 한다면 중국의 방방곡곡에서 우리글 잡지를 읽을 수 있는 한족독자가 많아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도 가져본다.

그리고 중국이란 이와 같이 크나큰 땅에서 조선문 잡지가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면 한국과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의 잡지를 번역하여 중문으로 번역한 번역지도 발간할 수 있어야 한다. 1986년 중문으로 번역된 「천지」 잡지는 번역지로서 주로 중국조선족의 문학지를 번역하고 한국의 최신문학잡지를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한족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것은 이 잡지에서 한국이나 조선 그리고 조선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데서였다. 우리는 이외에도 우리의 잡지 중에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경제나 역사 연구 등 학술지나 종합지를 발간하여 중국에다 한국의 선진기술과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하는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의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식성, 취미성을 주는 내용의 잡지들을 발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국의 많은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한국 형편을 알려고 자료들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실지로 보면 찾게 되는 중문으로 된 자료들 중에는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를 소개한 자료들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자연과학의 자료들은 더더욱 적은 편이다. 중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를 발간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를 중국인들에게 전하여주고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면에서 중국의 형편을 보면 한국을 소개하는 중문으로 된 간행물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중국의 큰 지역별로 보더라도 동북지구, 산동지구, 북경지구, 상해지구, 광둥지구, 사천 성도지구 등으로 크게 잡아 구분하였지만 실지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간행물들을 간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간행물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가 한 지구촌으로 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여러 면으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 재중 조선인 잡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조선문 잡지를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한테 보내주고,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형편을 중국에 알리며 선진국의 문헌자료들을 교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일부 중국의 도서관부문들에서 여러 모로 한국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며 교환실무를 강화하여 특색문헌을 발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재중 조선인 잡지사들은 사고를 넓히고 시장경제에 뒤떨어진 발상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일부 중국말잡지들을 보면 중국말 외에 외국의 독자를 상대로 2중 3중 문자로 발행되고 있는데 「女友」는 이미 호주로 들어가 자리잡고 「中國石油」 잡지도 「美國石油」 잡지와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에서 영어로 발행하게 되었다. 조선문 잡지들도 해외의 한민족을 위한 조선말도 좋지마는 이 밖의 외국을 상대로 한 외국문으로 된 이중 삼중 문자로 간행되는, 세계 지구촌을 접목시키는 매개물로 된 잡지들을 발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중국의 신장과 시장 같은 곳에서는 한문과 소수 민족문 두 가지 문자로 발간하는 잡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중 조선인들도 자기들의 잡지를 조선문과 중문으로 발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은 중국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조선문 잡지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민족의 문화를 하나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촌들의 외국인들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를 심어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문 간행물들의 역할이 그야말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몇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서에 비하면 잡지는 이제 겨우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재중 조선인 잡지는 이제 겨우 반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잡지는 마땅히 선진국 잡지의 특성들을 따라 배워 중국에서 일류로 손꼽히는 잡지로 간행되어 한족적 특성을 잃지 않을 뿐더러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개성을 지닌 잡지명품을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중국의 조선문 잡지를 특색 있게 잘 발간한다면 글로벌시대에 650만 제외 한민족과 남북한의 7천여만을 헤아리는 본 민족의 나라가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중문·조선문잡지’들이 나타날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이다.

V. 결 론

민족의 유지는 언어에서, 문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가 없다면 문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문자가 없다면 그 언어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조선족의 뜻이 더해진 언어가 조선말이며 이 말은 민족의 근간을 이룬다. 말을 일컬어 그 민족의 상징이고 생명이라고 여기는 이유이다. 이러한 글과 언어를 적는 것이 문자이고 이 문자는 출판을 통해 오랫동안 보존되고 발전되면서 민족의 문화가 전승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중 조선인의 조선문 간행현황과 간행의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중 조선인 잡지는 중국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20여종이 출간되었다. 잡지는 대체로 다양한 이유로 정간되거나 복간되었고 복간될 때마다 개명되었다. 특히, 1951년에 창간된 문학지인 「연변문예」는 역사가 길고 잡지명 변화가 6번이나 있었던 잡지이다.

둘째, 조선문 잡지명의 개칭 원인은 정치적인 영향으로 바뀐 것도 있고, 복간되면서 개칭된 것도 있고, 독자층을 고려해서 개칭되는 이유도 있었다. 반면에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창간의 이름으로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잡지로는 「장백산」, 「청년생활」 등도 있다.

셋째, 조선문 잡지를 주제별로 구분해 보면, 정치와 문학·예술분야의 잡지가 주종을 이루고 자연과학분야의 잡지 수는 적으며 역사분야의 잡지는 없는 실정이다.

넷째, 조선문 잡지 발행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조선족 인구의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독자층의 소실, 정부지원의 감소와 폐지,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

문 잡지 발행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조선족이외의 중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독자층을 확대하고, 2개 언어(중국어-한국어)로 된 잡지를 발행하며, 재외 한민족과 남북한 7천만을 배경으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결국 중국에서의 잡지출판은 영원한 사업이다. 조선문 잡서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경제 속으로만 적용시켜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문화사업이다. 재중 조선인의 조선문 출판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생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상철. 중국조선족언론사. 경남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5.
이봉우. 시장경제체제 도입 후 중국신문의 변화와 특성.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4.
中國当代期刊總攬(上、下).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朱學范. 中國報刊大全. 人民郵電出版社, 1986.
傳媒(京), 第10期(2001), pp.8-9.
出版工作, 第3期(2002), pp.54-59.